

초연하고 무상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도, 새해의 시간이 찾아오면서 동시에 기대하게 하는 뭔가가 함께 마음을 두드립니다.

송구영신을 지나며 그래도 은혜였고 감사였다고 고백했지만, 이 시간을 지나는 만큼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바랍니다.

더 큰 복을 받아야 할 새해, 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야 할 새해, 더 풍성한 기대가 실현되어야 할 새해. 늘 새로우면서 동시에 진부하기도 한 새해맞이.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쳐 들고 읽으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은 다른 '해'를 맞이하도록 인도합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 해는 부유한 이들만이 자기의 풍성한 부로 인해 여전히 기뻐하는 해가 아닙니다. 이 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미 기쁜 소식이 전해진 해입니다. 이 해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이들이 더 큰 변화와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각오와 다짐과 노력을 던져야 할 해가 아닙니다. 이 해는 포로 된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억눌린 사람들에게 이미 해방과 자유가 선포된 해입니다.

이미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오늘날 세상의 가치는 시간이 금이요, 돈이기에,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마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듯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언급된 작은 이들은 외면하게 하고, 가난한 삶, 포로 된 삶, 장애를 입은 삶, 억눌린 삶을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부족하고 결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경제적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반가움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명절을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새해'를 선포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21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새해'는 이미 모든 이들 앞에 이미 선포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복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금년 설 명절은 서로에게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이루라고 요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설날

명절 예배문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로 부름

다 같이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 시편 19:14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인도

말 은 이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4:18-19, 21

말 은 이

-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 2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말 씀 선 포

주의 은혜의 새해

말 은 이

찬 송 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님의 기도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